2023년도 대입수시 지원 대면 진학상담

7일까지 도교육청 · 5개 교육지원청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대입수시 지원을 위한 대면 진학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3일~17일 5일 간 진행되는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공교육 차원의 진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수시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한다.

전주지역은 전북 진로진학 홈페이지(http://www.jbe.go.kr/jinro)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받아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1일~7일까지 진행되는 상담기간 동안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현장접수를 통해 당일 상담만 가능하다. 현장 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정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능한 한 1부스당 2명까지만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3~4일 이틀간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해야 한다.

상담 장소는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익산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정읍교육지원청 2층 Wee센터, 남원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 김제교육지원청 2층 Wee센터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진학상담교사 40여 명(대교협 상담교사 19명 포함)을 배치했다.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부모는 학생부, 수능 모의평가 성적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대면상담 참석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는 입장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은 6개 대학(4년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추가합격 포함)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동안 적합한 대학과 대학별 전형, 면접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3년만에 대면 개최… 학부생 59명 · 대학원생 177명 입학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는 새롭게 입학하는 학부와 대학원 학생,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 온 복학생 등이 함께 해 대학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눴다.

이번 학기에 전북대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부 59명을 비롯해 대학원 177명이다. 그간 입국하지 못한 43명은 복학을 통해 학위과정 등에 참여한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사운영 및 대학생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국제협력부가 제작한 기념품도 유학생들에게 제공돼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였다.

특히 전북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기초 법질서나 생활법률 가이드 등을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안문석 전북대 국제협력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캠퍼스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일상회복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입국해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모든 유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더 이상 안타까운 장애학생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은화학교 장애학생 사망사건 관련 규탄 거리시위… 도교육청 특별감사 촉구 · 인권보장시스템 붕괴 진상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장애학생사망 대책위원회와 장애인 100여 명은 지난 8월 31일 장애학생 사망을 방치한 은화학교와 부실수사한 전북경찰청, 무책임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서거석 교육감에게 은화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인권보장시스템 붕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5월 27일 은화학교에서 1학년 장애학생이 학교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학교는 고인의 사망시점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침묵할 뿐, 유가족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해 납득 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가족이 요청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조차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장애학생사망대책위원회와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8월 31일 도교육청 앞에서 서거석 교육감에게 은화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2021년 11월에도 교사가 장애학생을 학대한 사건이 있었다.

초기 사건 왜곡과 2차 가해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은 매우 심각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의료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결석 예고통지를 하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가해교사는 징계는 커녕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교육청 책임도 매우 크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했으면 이번 참사는 방지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기피신청에 의해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고 전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현정 은화학교 학부모회장은 "은화학교는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교사가 학생을 교실에서 학대하고, 위기상황이 왔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했음에도 아무일 없는 것처럼 학교가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토록 망가진 학교를 보면 답답하다. 학생 인권과 생명을 소홀히 하는 학교에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겠나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도내 특성화고교 취업 지원 협의회

14개 특성화고 간 긴밀한 교류 · 협력 위한 다양한 의견 나눠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1일 '전북권역 특성화고교 취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도내 14개 특성화고교 실무 관계자들이 참여해 특성화고와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연계 프로그램 개선 방향과, 지역 청년 고용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전북권역 특성화고교 취업 지원 협의회'를 통해 특성화고 취업 지원 실무자들의 현장 수요와 의견을 수렴해 특성화고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청년층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BK21 사업단,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기소유예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전문 심리 상담 · 지역사회 청소년 발달 다학제적 지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복지인력양성 사업단(단장 윤명숙)은 최근까지 미술학과와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프로그램은 전주지방검찰청(지검장 문홍성)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 아트테라피 J.A.T'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수행됐다.

윤명숙 단장

김서현 교수

이번 프로그램에 윤명숙 단장과 김서현 교수,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5인(박사과정 오지원, 유현경, 이미진, 전예빈, 최미선)으로 구성된 지역연계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예술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했다.

또 집단 및 개별 심층면담,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의 전문가 심리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했다.

윤명숙 단장은 "청소년기는 개인의 삶에서 정체성을 수립하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역혁신 차원에서 일탈 행동을 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단은 지역혁신과 미래복지 발전을 위한 다학제적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고, 폭넓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군산대 새만금창의융합센터, 생활과학교실

5일부터 제3기 운영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9월 5일부터 '2022년 생활과학교실 3기'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복권기금이 후원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서천군이 주관한다.

생활과학교실 3기는 지자체별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등 42개소에서 주 1회, 개소 당 10회, 총 420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교육내용은 △꿀벌 곤충 눈 안경 △물고기 잠수함 △움직이는 오뚝이 △매직 플라워-양배추 지시약 △한눈에 보는 광합성 △간이소화기 △엔트리봇 △해시계 팔찌 △전지의 다양성-숯 전지 △발효 샌드위치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교육 일정,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kssciencclass), 서천군은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063-466-215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미래 軍 발전 주도 인재 양성 '맞손'

우석대 - 육군포병학교, 학술교류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육군포병학교(학교장 강인규 소장)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 미래 군 발전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육군포병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강인규 학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군계열학과를 중심으로 육군포병학교와 △인적·물적 자원 교류 △학술 및 미래전 연구 교류 △교수·분야별 전문가 초청강연 개최 △학·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현장 실무교육 지원 등의 교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육군포병학교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 군 계열학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군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규 학교장은 "군 인재 양성 특화 대학인 우석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군 간부 양성은 물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반려동물 관련 전공 강화

반려동물산업학과 신설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동물의 간호와 건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인 동물보건사 양성을 목표로 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해 2023학년도부터 반려동물 관련 전공 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반려동물산업학과와 더불어 신설한 동물보건학과 등 반려동물 관련 학과 2개를 운영하게 된 원광대는 반려동물산업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국가자격으로 동물보건사가 도입되는 등 교육 목표와 환경 변화가 심한 상황에 맞게 전공 교육을 다양화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를 비롯해 실험 및 임상병리 검사를 담당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졸업 후 대학 및 개인 동물병원 취업, 바이오연구소 동물실험 및 임상 전문 연구원, 동물복지 또는 동물방역 관련 국가 공무원, 동물매개치료 및 반려동물 행동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온라인 입시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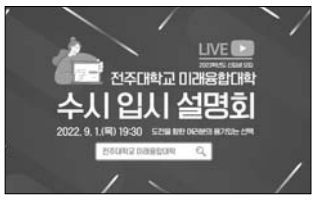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3학년도 수시 대비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입시설명회는 1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 및 https://bit.ly/3pSceNx 주소로 참여할 수 있다.

전주대 2023학년도 수시 접수는 13일~17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 및 대상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설명 및 미래융합대학소개, 각 학과별 설명 등이다.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궁금증 해결과 입시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해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우리대학 수시모집을 대비하는 방법 등 여러 궁금증을 교수님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2019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해 온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에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출신의 3년 이상 재직자와 만 30세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특별 입학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20-46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